

아동과 청소년 비행의 원인비교: 허쉬의 사회유대이론을 중심으로

김 상 원*

국문요약

사회유대이론은 미국의 청소년의 비행을 설명하는데 있어 영향력이 있는 이론으로서 국내외에서 그동안 많은 경험적 연구가 있어 왔다. 이 논문은 사회유대이론에 기반하고 있는 여러 사회유대 요소들에 해당되는 변수들을 사용하여 한국의 아동(초등학생)과 청소년의 비행(중등학생)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사회유대이론의 적실성을 검증해보고, 아동과 청소년의 비행의 원인과 관련하여 이런 변수들과 비행 간의 인과관계에서 서로 다른 차이점들이 발견되는지를 알아보려고 한다. 이 가설들을 검증하기 위해 사용된 자료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한 한국청소년패널 2차년도 조사 자료를 이용하였다.

분석결과는 사회유대요소들이 아동비행과 청소년비행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사회유대요소와 비행 간에 유의미한 관계를 보여준 경우가 청소년 비행 원인분석 모델에서 더 많았으므로 사회유대이론은 아동보다는 청소년의 비행을 설명하는데 좀 더 적절한 이론적 모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아동의 경우는 경비행에 속하는 지위비행, 남괴롭힘, 사이버비행은 설명력이 높은 반면, 중비행(폭력비행, 재산비행)은 설명력이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청소년의 경우에는 경비행과 함께 중비행에 대한 설명력도 어느 정도 있음을 보여주었다.

* 동의대학교 법정대학 법·경찰행정학부 경찰행정학전공 교수, 사회학박사

I. 문제제기

아동과 청소년의 비행은 많은 범죄학자들에게 꾸준히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다. 실제로 외국의 많은 범죄학 이론들 중에는 애초에 청소년비행을 설명하고자 시작했던 이론들도 많이 존재한다. 그만큼 청소년비행이 전체 범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미래의 잠재적 성인범죄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아동과 청소년의 비행에 대한 원인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지금 당장의 아동/청소년비행 예방하고 교정하는 일 뿐만 아니라 이들이 나중에 성장하여 성인이 되어 더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임에 틀림없다(Musick, 1995; Whitehead and Lab, 1990).

최근의 청소년비행관련 통계자료에 따르면 전체 범죄에서 청소년비행이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높아져가고 있음을 보여준다(김준호 외, 2003). 그리고 청소년범죄유형의 구성 비율에 있어서도 재산범죄의 비율이 감소하고 폭력범죄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고, 청소년범죄자의 가정환경 및 개인적 특성에 있어서도 하류계층 및 결손가정 출신의 청소년범죄자의 비율은 줄어들고 중류계층의 정상가정 출신의 청소년범죄자의 비율이 늘고 있는 경향을 보인다. 청소년범죄의 성별구성도 여자청소년의 비율이 1995년 이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범죄자의 연령대도 점점 낮아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서 청소년범죄자의 저연령화 경향을 발견할 수 있다(김준호 외, 2003). 이러한 경향들 중에서 청소년비행의 저연령화 경향은 연구자들로 하여금 초등학교(아동)와 중학교(청소년) 사이에 비행의 원인에 있어서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존재하는지에 관해 많은 관심을 갖게 만든다. 따라서 이 연구는 아동과 청소년이 저지르는 몇 가지 주요비행

유형에 있어서 그러한 비행의 원인들에 대한 비교를 해봄으로써 위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구해 보고자 하였다.

범죄학이론 가운데에는 아동/청소년 비행의 원인에 대한 다양한 이론들이 존재한다. 이 중에서 사회통제이론적 시각은 모든 사람은 법을 어기는 행위에 똑같이 동기부여를 받고 있다고 보고, 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비행을 더 잘 저지르게 될까라는 물음 대신에 오히려 많은 대다수 사람이 비행을 저지르지 않게 하는, 혹은 덜 저지르게 하는 기제가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리고 그 역할을 바로 여러 사회통제 기제들이 수행한다고 보고 있다. 사회통제이론은 인간의 행동을 규제하고 순응(conformity)이나 혹은 사회의 규칙에 대한 복종을 이끌어내는 기술과 전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Adler, Mueller, and Laufer, 2001). 예를 들면, 가족과 학교의 영향, 종교적 믿음, 도덕적 가치, 친구, 정부에 대한 신뢰 등이 그러한 기제(mechanism)들이라고 볼 수 있다. 자기가 속한 사회의 관습적 활동이나 가치에 보다 더 참여하고 관여할수록, 그리고 부모, 사랑하는 사람, 친구에 대한 애착이 강하면 강할수록 사회의 규칙을 어기거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위협에 빠뜨리는 행위를 할 가능성은 적어진다고 본다.

사회통제라는 개념은 20세기가 시작될 무렵에 미국 사회학의 창시자중에 한명이라고 알려져 있는 로스(Ross, 1901)의 저작에서 나오게 된다(Adler, Mueller, and Laufer, 2001). 로스에 의하면 믿음체계는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안내자역할을 하고 인간의 행동을 통제한다고 보았다. 이 이후로 사회통제라는 개념은 상당히 폭 넓은 의미로 쓰이기 시작했고, 따라서 이 개념은 순응(conformity)을 이끌어내는 모든 현상들을 다 포함하는 용어가 되었다. 그 결과 통제적 힘의 주체(host of controlling forces)를 표현하는 용어로서의 사회통제는 법, 관습, 도덕, 이데올로기, 민

습을 다루는 학문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다(Gibbs, 1977). 범죄학에서 사회통제라는 용어는 주로 무엇이 일탈행위로 여겨지는가, 무엇이 옳고 그른가, 무엇이 법률을 위반하는 것인가를 정의하는데 사용되어진다고 볼 수 있다(Adler, Mueller, and Laufer, 2001).

이 연구에서는 미국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이 사회통제 이론이 한국사회의 아동/청소년의 비행을 설명하는 데에는 얼마만큼의 설명력을 가질 수 있는지에 관해 연구를 해 보려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다양한 사회통제이론들 중에 주로 허쉬(Hirschi, 1969)의 사회유대이론을 중심으로 그 이론에 기반하고 있는 여러 사회통제 기제들(예를 들면, 부모애착, 부모감독, 학교 혹은 선생님과 애착, 친구애착, 학교공부예의 관여, 학생의 직업과 교육에 대한 열망과 기대, 교내 혹은 교외활동의 참여, 여가활동의 정도 등)에 해당되는 변수들을 사용하여 한국의 아동/청소년 비행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사회유대이론의 적실성을 검증해보려고 한다.

이성식(1995)이 주장한대로 사회유대이론의 적용가능성은 미국과 같은 서양사회보다도 한국사회와 같이 부모, 친구 등의 타자와의 관계를 중시하는 동양사회에서 적용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미국사회의 청소년비행을 설명하는데 이 사회유대이론의 적실성이 얼마나 있는가를 놓고 많은 논쟁이 있어왔다. 그렇다면 한국사회에서는 실제로 이런 사회유대 변수들이 아동/청소년 비행들과 상관관계가 있는지, 다른 통제변수들을 통제했을 때에도 이러한 변수들이 비행과 유의미한 관계를 계속 보여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그리고 사회유대이론의 여러 요인들은 연령이 다른 연구대상에 따라 그 설명력도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이성식, 1995). 이런 연구관심에 기초하여 이 연구에서 초등학생(아동)과 중등학생(청소년)의 비행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이런 사회유대변수들 사이에 서로

다른 차이점들이 발견되는지를 알아보려고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사회유대이론

사회유대이론은 허쉬(Hirschi, 1969)의 사회통제이론을 지칭하는 것이다. 허쉬는 사회화와 순응을 촉진시키는 4가지 사회유대(social bonds)로서 애착, 관여, 참여, 신념을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사회적 유대가 강할수록 일탈을 저지를 확률이 적어진다고 보았다. 이러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그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州)의 중, 고교학생 4077명을 대상으로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통해 비행과 4가지 사회유대와의 관계에 대해 조사하였다. 그 결과, 허쉬는 4가지 사회유대요소 중에 어느 한 가지에서 약할 경우 범죄나 일탈행위와의 관계가 있게 됨을 발견하였다(Hirsch, 1969). 그리고 그는 이 4가지 사회유대요소가 함께 일어난다고 보았다. 만약 한 사람이 4가지 중 한 요소를 가지고 있으면 나머지 사회유대요소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보았고, 만약 4가지 중에 어느 하나가 약하거나 결핍되었다면 다른 나머지 사회유대 요소도 약하거나 결핍될 것이라고 본 것이다(Hirschi, 1969: 27).

첫 번째 사회유대 요소는 애착(attachment)이다. 애착은 일반적으로 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는 가까운 애정적 결속, 존경감, 동일화(identification)의 정도를 의미한다. 허쉬는 애착을 다시 크게 3가지 형태로 나눈다. 부모에 대한 애착, 학교(선생님)에 대한 애착, 친구에 대한 애착이 거기에 해당된다. 허쉬에 따르면 부모에 대한 애착이 강한 청소년은

일탈을 저지를 가능성이 적다고 보았다. 왜냐하면, 일탈행동은 부모와의 좋은 관계를 위협에 빠뜨리게 할 것이고 그들은 이러한 결과를 원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Hirschi, 1969). 더 나아가 그는 위의 세 가지 애착 가운데 부모와 자녀사이의 애착이 범죄와 일탈을 억제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보았다. 부모와의 애착도 세 가지 차원으로 다시 세분화될 수 있는데, 첫째는 부모가 자녀와 보내는 절대적 시간과 부모의 감독이 중요하다고 보았다(Hirschi, 1969: 88). 이 중에서 허쉬는 단순히 얼마나 많이 자녀와 함께 시간을 가지는가(physical presence)에 따른 절대적 시간 보다는 부모와 떨어진 상황에서 범죄의 유혹을 받는 순간 부모의 존재(psychological presence)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실질적 부모의 감독(virtual supervision)이 범죄와 일탈을 억제하는데 있어서 더 중요한 요소라고 보았다(Hirschi, 1969: 88). 두 번째 차원은 대화의 친밀성(intimacy of communication)으로서 자녀가 본인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이나 본인의 생각, 미래의 결정 등을 부모와 상의하고 대화하는 정도를 말한다. 세 번째 차원은 자녀가 부모에 대해 갖는 애정, 존경심 등을 나타내는 정도(affectional identification)이다.

두 번째 애착은 학교(선생님)에 대한 애착이다. 허쉬는 학교에 대한 애착과 일탈과의 관계를 학교성적과 연결시켜 설명한다(Hirschi, 1969: 120). 학교성적의 부진은 전반적인 학교활동에서의 성과를 떨어뜨리고 이것이 다시 학교자체와 선생님과의 애착 또한 감소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리고 학교와 선생님과의 애착의 감소는 결국 일탈의 가능성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 애착은 친구에 대한 애착이다. 허쉬는 친구가 비행친구이든 좋은 친구이든 상관없이 친구와의 애착이 강할수록 일탈을 할 가능성이 줄

어든다고 보았다. 이러한 관점은 비행친구와의 접촉이 비행을 유발한다고 보는 차별접촉이론(Sutherland, 1939)과는 대조적인 것인데, 허쉬는 비행의 원인으로서는 비행친구의 영향력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것이다. 나아가서 그는 비행친구와 비행 간의 관계는 순응에의 이해관계(stake in conformity)라는 변수를 제거하면 사라지게 되는 ‘허위적 관계(spurious relationship)’라고 보았다(Hirschi, 1969: 138).

사회유대의 두 번째 요소는 관여(commitment)이다. 여기서 관여는 사회의 관습적인 활동들과 관례에 대한 투자정도와 순응에의 이해관계를 통해 자기가 속한 사회에 얼마나 연결될 수 있는가의 정도를 말하는 것인데, 범죄나 일탈을 통해 상실될 수 있는 투자분이나 순응에의 이해관계가 높을수록 그런 행위를 할 가능성이 줄어든다고 보는 것이다(Hirschi, 1969: 162). 허쉬는 이러한 관여적 요소로서 직업과 교육에 대한 열망과 기대, 학업성취도(학교성적) 등을 꼽았다.

사회유대의 세 번째 요소는 사회의 통상적 활동에 대한 참여이다. 사회의 통상적 활동에 대한 참여와 열중은 청소년이 범죄나 일탈에 가담할 수 있는 절대적 시간의 부족으로 인하여 불법적 행위의 가담기회가 줄어들 것이라고 보았다. 대표적인 참여의 예로서는 학교관련활동(숙제, 공부), 가족과 시간보내기, 스포츠, 여가 및 취미활동 등을 말한다.

사회유대의 마지막 네 번째 요소는 신념(belief)이다. 여기서 말하는 신념이란 사회의 가치체계와 규범에 대한 동의와 인정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동의와 인정은 법과 그것을 시행하는 기관과 사람에 대한 존중을 수반하는 것이다. 허쉬는 만약 청소년들이 법이 더 이상 공평하다고 믿지 않는다면 그들의 사회에 대한 결속도가 약해지고 법을 어기는 행위를 할 가능성이 증가하게 된다고 보았다.

2. 기존문헌 연구

아동의 비행에 관한 국외의 문헌들 중에 사회유대요소와 관련된 논의를 포함하고 있는 많은 연구들은 대부분 아동의 부모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Baber, 1997; Cummings, Davies, and Campbell, 2000). 아동의 비행을 설명하는데 부모의 정서적 관계와 지도감독, 통제가 중요한 요인이라고 본다. 이는 허쉬의 부모애착 요인과 매우 흡사한 요인들인데, 전자는 허쉬의 부모애착에서 부모와의 친밀감, 애정, 존경심과 비슷하고, 후자는 부모의 감독과 매우 유사한 개념이다. 아동양육의 주담당자인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부모와의 정서적 친밀감이 낮고 냉담한 관계형성은 아동의 공격성을 커지게 만드는 경향이 있으며(Egeland, Carlson, and Sroufe, 1993; Pettit and Bates, 1989), 비행아동과 부모와의 관계는 서로 이해나 애정이 없고 무관심한 관계를 가지는 것이 주된 특징이라고 본다(Rutter and Giller, 1984). 그 밖의 다른 종단연구에서도 애정이 없는 부모 밑에서 성장한 아동들이 이후에 비행에 빠질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Rankin and Wells, 1994; Simth and Krohn, 1994; Stern and Smith, 1995).

국내의 연구문헌들 중에서 아동의 비행을 아동복지학이나 아동심리학적 입장에서 연구한 논문들은 있으나 범죄사회학적 시각으로 바라보는 논문은 별로 없고, 그중에서도 사회유대이론의 입장에서 다룬 경험적 연구는 거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그 이유는 아마도 아직까지 아동의 비행은 사회적으로 덜 심각하다고 여겨지는 경향이 있으며 아동비행을 연구하기 위한 자료구축이 청소년에 비해 쉽지가 않고 따라서 관련 자료가 많이 축적되지 않았기 때문일 것으로 보여 진다.

아동의 비행에 관한 연구들 중에서 사회유대이론과 관련된 연구들을 보

면, 우선 박영신, 김이철(2000)의 연구에서 아동기에 부모와의 정서적 친밀감이 낮은 경우에는 나중에 청소년기에 일탈행동을 높게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엄명용(2001)의 연구에서는 아동학대와 청소년비행 간의 관계에서 현재의 부모의 양육행동의 형태에 따라 과거의 아동학대가 청소년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시키는 완충효과가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부모의 자녀감독과 자녀에 대한 적절한 지지의 제공이 청소년 비행의 예방에 중요한 요소임을 알려주고 있다. 이것은 허쉬의 사회유대이론에서처럼 부모와 자녀간의 유대에 있어서 애착의 여러 요소인 부모의 적절한 감독과 친밀도, 애정이 청소년 비행을 감소시킨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의 연구대상은 청소년 집단이었기 때문에 아동에 대한 부모의 양육양식과 아동의 비행과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연구한 것은 아니었다. 친구집단의 영향과 관련해서는 친구집단으로부터 거부된 아동은 공격성, 파괴적 행동, 적대적 행동, 외로움, 주의 산만한 행동 등의 정도가 높고(이은혜, 김정운, 오원정, 2001), 반대로 친구의 지원이 높을수록 사회 부적응에 의한 문제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미현, 유안진, 1996). 학교요인과 아동의 비행에 관한 연구에서도 낮은 학업성취가 아동비행의 예측요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정익중, Hawkins, 2002). 초등학교 4, 5, 6학년을 연구대상으로 한 최선희, 김희수(2006)의 연구에서는 아동비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인 양육자의 양육활동, 또래관계, 교사와의 관계와 학업적응, 그리고 개인요인인 충동성과 같은 요인들의 다차원적 상호작용을 알아보았다. 연구결과는 비행행동을 많이 하는 아동과 그렇지 않은 아동을 구분하는데 작용한 변수의 상호작용은 비행또래친구여부□충동성□학업적응이었다. 이것은 아동비행에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1차적으로 비행친구 여부이고, 비행친구가 있는 경우 다음 단계로 충동성이 중요

하고, 충동성이 높은 경우 학업적응이 중요한 요인임을 의미한다.

이러한 기존의 아동비행에 관한 연구결과들은 아동의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은 청소년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과 비슷하다는 것을 보여주며, 부모양육, 친구관계, 학교적응, 학업성취 등의 요소는 허쉬의 사회유대요소 가운데 애착(부모, 친구, 학교)과 관여(학교성적)의 변수와 관련되어 있다고 볼 때 허쉬의 사회유대이론이 청소년 비행의 원인뿐만이 아니라 아동 비행의 원인을 설명하는데 어느 정도 공헌할 수 있음을 암시한다고 할 수 있다.

청소년 비행과 관련해서는 외국의 많은 연구들이 사회유대이론을 경험적으로 검증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우선 힌데랑(Hindelang, 1973)은 허쉬의 연구와 매우 유사한 연구를 통해 허쉬가 발견한 결과와 유사한 결론을 얻었는데, 부모에 대한 애착이 청소년비행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요인임을 다시 확인하였다. 그리고 다른 연구들도 부모의 훈육, 자녀양육방법 등 사회유대이론에서 다루는 중요한 가족변수들이 차후 그들의 비행을 결정하는 가장 좋은 예측 변수들이라는 결과를 일관성 있게 제시하고 있다 (Glueck and Glueck, 1959; McCord and McCord, 1959; Loeber and Stouthamer-Loeber, 1986; Hill, Howell, Hawkins, and Pearson, 1999). 크론과 매세이(Krohn and Massey, 1980) 연구에서는 관여와 참여가 서로 분리되기 어려운 개념이라고 보고 이 둘을 묶어서 하나의 변수로 사용하여, 애착, 관여, 신념의 세 변수를 가지고 비행과의 관계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사회유대와 관련한 변수들이 비행과 중간정도의 강도로 관계가 있기는 하지만, 심각한 비행보다는 사소한 비행에 더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내었다. 그 외의 다른 연구에서도 사회유대이론을 지지하는 결과가 나오기는 했지만 그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고 주로 사소한 지위비행을

설명하는데 그친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Wiatrowski, Griswold, and Roberts, 1981; Agnew, 1985).

청소년비행의 원인에 관한 기존 연구들 가운데 사회유대이론과 관련된 논의를 검증하기 위한 경험적 연구들이 국내에도 다수 있다. 청소년비행을 다룬 연구 중에서 사회유대이론을 직, 간접적으로 다룬 국내의 연구로서 우선 김준호와 김순형(1995)의 연구에서 가족과 비행과의 관계를 검증하였는데, 이 연구에 사용된 변수들 중에 가족의 기능적 특성과 관련된 변수들은 허쉬의 가족애착과 연관이 있는 변수들이고 이 변수들은 대체로 비행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성식(1995)은 허쉬의 사회유대이론에 담겨있는 인간의 합리적 성향의 강조와 이런 합리적 판단과정에서의 상징적 상호작용론적 관점의 도입을 통해 사회유대이론에 대한 수정된 논의를 발전시키면서 단순한 사회유대의 정도뿐만 아니라 수정된 모델로서, 비행할 때 예상되는 타자(부모나 친구)의 반응이나 타자와의 관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손실 혹은 학교공부에서의 손실을 포함시키는 모델을 경비행과 중비행으로 나누어 구성해보았다. 분석결과는 단순한 사회유대요인들이 타인과의 관계손실 변수를 집어넣음으로써 약화되거나 사라지는 반면, 타인과의 관계손실변수는 경비행과 중비행 모두 영향력이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사회유대이론과 차별접촉이론의 논쟁의 핵심중의 하나인 사회유대요소가 비행친구를 통한 범위반에 대한 태도를 통해 비행에 간접적 영향을 주는지(차별접촉이론의 입장), 아니면 직접적 영향력을 갖는지(사회유대이론의 입장)를 검증했는데, 결과는 사회유대요소가 비행에 직접적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성식은 허쉬의 이론을 좀 더 면밀히 분석해 볼 필요를 제시하면서 사회유대이론이 연구대상에 따라 그 설명력이 상이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면서 부모애착과 같은 변수가 연령별로

차이나는 청소년집단에 따라 그 설명력이 다를 수 있다고 보았다. 유순화(2003)는 사회유대이론과 사회학습이론의 통합이 이 두 이론의 한계점을 극복 시키고 청소년비행의 예측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이 연구에서 행한 판별분석 결과에 의하면 비행경험의 유무를 판별함에 있어서 사회유대이론에 의한 판별함수가 비행유무를 유의미하게 판별하였고, 평균 71.7%의 사례를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학습이론에 의한 판별함수도 역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76.7%의 사례를 예측하였다. 이 두 이론을 통합한 판별함수는 청소년 비행유무를 유의미하게 판별했을 뿐만 아니라 평균 79.6%의 사례를 분류해 냄으로써 청소년 비행의 예측력이 향상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3. 가설들의 요약

이와 같이 때로는 사회유대이론의 이론적 적실성을, 때로는 이 이론과 다른 이론 간의 경험적 타당성 검증, 때로는 두 이론 간의 통합적 논의를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아동(초등학생)과 청소년(중등학생)의 비행원인 간에 있어서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에 관한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이성식(1995)이 제기한대로 기존의 고등학생 위주의 연구대상이 아닌 낮은 연령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확대된 연구를 통해 연령별 비교를 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래서 이 연구는 구체적으로 사회유대이론의 관점에서 비행의 원인이라고 주장되는 변수들이 아동비행(초등학생)과 청소년비행(중학생)에 영향을 주는데 있어서 어떤 차이점이 발견되는지를 보고자 하는 것이다.

기존문헌들을 검토해 보았을 때 아동비행도 사회유대이론의 청소년비행

에 대한 논의와 유사하게 설명할 수 있다고 보며, 사회유대요소 가운데 특
정요인은 대상이 되는 집단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 이론
이 주로 사소한 경비행을 더 잘 설명한다는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해서 이
연구의 연구 가설들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 (1) 사회유대요소가 약한 아동일수록 비행을 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 (2) 사회유대요소가 약한 청소년일수록 비행을 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 (3) 부모애착, 부모감독 요소는 청소년보다는 낮은 연령집단인 아동비행
을 설명하는데 보다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다.
- (4) 사회유대요소는 아동비행에서 중비행(폭력비행, 재산비행)보다는 주
로 경비행(지위비행, 남괴롭힘, 사이버비행)과 보다 유의미한 관계를
보일 것이다.
- (5) 사회유대요소는 청소년비행에서 중비행(폭력비행, 재산비행)보다는
주로 경비행(지위비행, 남괴롭힘, 사이버비행)과 보다 유의미한 관계
를 보일 것이다.

Ⅲ. 자료와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및 분석방법

이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한 한국청소년
패널 2차년도 조사자료로서 초등학교 4학년과 중학생 2학년(2차년도 조사
당시, 중학생 3학년)을 대상으로 한 설문지를 이용한 면접조사 자료이다.
표집방법은 초등학교 4학년의 경우, 2004년 4월 1일 기준 전국(제주도 제

외)의 초등학교 4학년 아동들을 모집단으로 하고, 2004년 4월 1일 기준 2004년 교육통계연보를 표집틀로 삼아 층화다단계집락표집의 방법으로 2,844명의 아동들 및 부모들을 표집하여 조사하였다. 또한, 중학교 2학년 청소년들의 경우, 2003년 4월 1일 기준 전국(제주도 제외)의 중학교 2학년 청소년들을 모집단으로 하고, 2003년 4월 1일 기준 2003년 교육통계연보를 표집틀로 삼아 역시 층화다단계집락표집의 방법으로 3,449명의 청소년 및 부모들을 표집하여 조사한 1차 자료 조사 대상자 가운데 중도 탈락한 220명을 제외한 3,209명에서 수집한 자료를 사용하였다(이경상, 조혜영, 박현수, 2004). 분석방법은 사회유대이론과 관련된 다양한 유대변수, 통제변인들과 아동과 청소년 비행사이의 인과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Ordinary Least Squares(OLS) 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2. 변수들의 측정

가. 종속변수

이 연구의 종속변수는 아동과 청소년의 비행이다. 우리나라에서 청소년의 개념이 매우 폭넓게 사용되고 있는 현실에서 아동과 청소년이 연령적으로 중복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이 연구에 국한시켜 분류를 위한 편의상 초등학생을 아동이라고 부르고 중등학생을 청소년이라고 부르도록 하겠다.

이 연구에서는 아동과 청소년의 비행유형에 따라 사회유대이론과 관련된 여러 독립변인들이 각각 어떤 관계를 갖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종속변수로서의 비행을 5가지 유형인 지위비행, 폭력비행, 재산비행, 남괴롭

힘, 사이버비행으로 구분하였다. 먼저 지위비행이란 아동/청소년이라는 사회적 지위 때문에 일탈 혹은 범죄로 규정되는 행위를 지칭하는 것으로서 지위비행을 측정하기 위해서 아동/청소년의 ‘담배피우기’, ‘술마시기’, ‘무단 결석’, ‘가출’ 등으로 측정하였다. 응답자들이 각각의 문항에 대해 “전혀 없다”와 “있다”로 응답했는데 전자의 경우에는 0으로 부호화하고 후자의 경우에는 1로 부호화를 하여 0점에서 4점까지의 범위를 가지는 지수(index)를 구성했다.

폭력비행은 상대방 의사에 상관없이 자신의 의지를 관철하기 위하여 물리적 강제를 동원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아동의 경우는 ‘협박하기’, ‘심하게 때리기’ 등으로 측정했고, 청소년의 경우는 ‘패싸움’항목이 추가되었다. 부호화 방법은 지위비행과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였다.

재산비행은 개인 혹은 법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자신의 이득을 위해 타인의 금품이나 물건을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가로채는 것을 일컫는다. 재산비행의 측정을 위해 ‘돈이나 물건 뺏기’, ‘돈이나 물건 훔치기’라는 두 항목을 사용하였으며 부호화 방법은 위의 두 비행과 동일하다.

남 괴롭힘은 구체적인 폭력적 수단을 사용하지는 않지만 타인을 놀리거나 괴롭히는 일련의 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집단 따돌림 시키기’와 ‘놀리거나 조롱하기’라는 두 항목을 사용하였다. 부호화 방법은 역시 다른 비행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사이버비행은 컴퓨터와 관련해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를 포함하는 것으로, ‘인터넷에 고의로 거짓내용 유포’, ‘불법소프트웨어 다운받기’, ‘타인의 인터넷ID/주민등록번호 몰래 사용하기’, ‘채팅 할 때 성이나 나이 속이기’, ‘해킹하기’, ‘채팅/게시판에서 욕설하기’ 등의 6가지 항목으로 측정하였다. 부호화방법은 위의 다른 비행처럼 경험유무에 의한 부호화 방

법을 사용한 후 모두 합산하였다.

나. 독립변수

사회의 유대(bonding)을 나타내는 지표로는 허쉬가 주장한 4가지 사회 유대요소를 나타내는 변수들을 가능한 모두 사용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설문지에 포함된 항목들 중에는 신념(belief)을 측정할 수 있는 적절한 문항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신념을 제외한 다른 3가지 유대요소만을 변수로 사용하였다. 우선 부모의 애착(대화의 친밀성과 애정, 존경심을 나타내는 것: intimacy of communication/affectional identification)은 ‘부모님과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한다’, ‘부모님은 나에게 사랑과 애정을 보이신다’, ‘부모님과 나는 서로 잘 이해하는 편이다’, ‘부모님과 나는 무엇이든 허물없이 이야기하는 편이다’, ‘나의 생각이나 밖에서 있었던 일들을 부모님께 자주 이야기한다’, ‘부모님과 나는 대화를 자주 나눈다’ 등의 6개 항목으로 측정하였다. 응답자는 이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의 항목에 대한 점수를 모두 합산하여 부모의 애착정도를 나타내는 변수로 사용하였다 (Cronbach’s Alpha=.762/아동, .882/청소년).

부모의 감독(부모의 심리적 존재를 의식하는 것: virtual supervision)은 ‘내가 외출했을 때 부모님은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아신다’, ‘내가 외출했을 때 부모님은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는지 아신다’, ‘내가 외출했을 때 부모님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신다’, ‘내가 외출했을 때 내가 언제 돌아오는지 아신다’ 등의 4개 항목으로 측정하였다. 지수구성방법은 위와 동일하다(Cronbach’s Alpha=.797/아동, .869/청소년).

선생애착은 ‘선생님께 고민을 이야기할 수 있다’, ‘선생님이 나에게 사랑과 관심을 보여주신다’, ‘장래에 선생님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등의 3개 항목으로 측정하였고 지수구성방법은 역시 위의 다른 독립변수와 동일하다(Cronbach's Alpha=.548/아동, .724/청소년).

친구애착은 아동의 경우 ‘학교에 많은 학생들이 있지만 나는 자주 외로움을 느낀다’(역으로 재부호화 하였음)와 ‘나는 학교에서 학교친구들과 잘 어울린다’의 두 항목을 사용하였고(Cronbach's Alpha=.551), 청소년의 경우는 ‘나는 학교에서 학교친구들과 잘 어울린다’와 ‘나는 나에 대한 친구들의 평을 중요시한다’의 두 항목으로 측정하였다(Cronbach's Alpha=.500). 친구애착의 측정에서 전체 세 항목을 합친 지수의 신뢰도가 낮아서 각각 아동과 청소년의 경우에서 가장 높은 신뢰도를 가지는 항목의 조합을 가지고 사용하였다. 지면을 아끼기 위해서 분석결과를 보여주는 장에서 따로 표를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나는 학교에서 학교친구들과 잘 어울린다’는 한 항목만을 측정도구로 사용하여 아동과 청소년의 회귀모형을 측정해 본 결과 원래의 모델측정 결과추정과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관여는 공부에의 관여를 나타내는 척도로서 학교성적에 관한 문항을 사용하였다. 아동의 경우는 객관적 학교성적을 묻는 문항이 없기 때문에 과목별 반성적을 묻는 9개의 문항을 사용하였다. 응답자는 “매우 못하는 수준”에서 “매우 잘하는 수준”까지 5점척도로 답하게 되어있는데, 모든 항목을 합한 점수로 지수를 구성하였다(Cronbach's Alpha=.739). 청소년의 경우는 학교성적을 묻는 문항이 있기 때문에 반석차의 백분율로 측정하였다(역으로 재부호화 하였음). 아동의 경우에 사용했던 과목별 반성적을 묻는 문항을 측정도구로 사용하여 회귀모형을 측정해 본 결과 원래의 측정모델 결과추정과 다르지 않았다(따라서 마찬가지로 지면사정상 표로서 따로 제

시하지는 않았다).

객관적 학교성적 이외에도 학생의 직업에 대한 기대는(청소년에게만 해당문항이 있음) ‘학생이 장래 원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문항을 사용하였다. 응답자는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 5점척도로 응답하게 되어 있다. 학생의 교육에 대한 열망은 ‘학생은 다음 중 어느 단계까지 학교를 다니고 싶습니까’라는 항목을 사용하였다. 높은 단계일수록 높은 점수를 주게끔 척도가 구성되어져 있다.

참여를 나타내는 변수 중에서 이 연구에서는 학교관련활동으로만 국한시키기로 하였다. 참여를 측정하기 위해서 아동과 청소년이 학교 이외의 과외활동이나 사교육(문항의 구성에 따라 아동의 경우 9과목/청소년의 경우 8과목)을 한 경험의 유무를 이용하여 없으면 0, 있으면 1로 부호화한 후 모두 합산하였다(Cronbach's Alpha=.719/아동, .865/청소년).

다. 통제변수

사회유대이론에 따른 사회유대요소가 비행에 설명하는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범죄학 문헌들에서 비행의 원인과 관련해서 중요하게 다루어져 온 여러 변수들을 통제변수로 사용하였다. 우선 차별접촉이론이나 사회학습이론에서는 비행친구가 비행의 중요한 원인이라고 주장한다(Sutherland, 1939; Glaser, 1956; Burgess and Akers, 1966; Akers, 1985). 그리고 사회유대이론의 요인들이 직접적으로 아동/청소년비행에 영향을 주는지, 아니면 차별접촉이론의 주장처럼 비행친구를 통한 범위반에 대한 우호적 가치태도를 통해 간접적 영향력을 갖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비행친구변수를 통제변수에 넣었다(이성식, 1995). 비행친구를 측정하기 위해서 아동의 경우

는 “친한 친구들 중에 지난 1년 동안 아래의 일들을 해 본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의 16가지 비행항목 중에 종속변수의 비행유형에 해당되는 10가지 비행을 한 적이 있는 친구의 수를 합산하여 변수로 사용하였다(Cronbach's Alpha=.804). 청소년의 경우는 역시 “친한 친구들 중에 지난 1년 동안 아래와 같은 일들을 해 본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의 6가지 유형(술마시기, 담배 피우기, 무단결석, 다른 사람을 심하게 때리기, 남의 돈이나 물건을 뺏기, 남의 돈이나 물건을 훔치기)을 한 적이 있는 친구의 수를 합산하여 비행친구변수로 사용하였다(Cronbach's Alpha=.877).

사회인구학적 변수로서 성별과 가구소득을 사용하였다. 성별은 남자를 1, 여자를 0으로 부호화하였으며, 가구소득은 원자료를 그대로 사용하였는데 가족의 월평균 소득은 가정에서 돈을 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근로소득, 이자소득, 임대소득, 연금 등의 1년간의 모든 소득을 합해서 12개월로 나눈 월평균금액을 만원 단위로 조사한 자료이다.

IV. 분석결과

<표 1>과 <표 2>는 아동과 청소년의 분석에 사용된 모든 변수들의 기술 통계분석과 상관관계들을 보여주고 있다. 아동의 경우, 사회유대 변인들과 비행들과의 상관관계는 예상했듯이 모두 부(-)적 관계를 보였다(예외적으로 과외활동만 남괴롭힘, 사이버비행과 정(+)적 관계를 나타냈다). 그리고 사회유대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는 과외활동과 선생애착을 제외하고는(유의미하지 않음) 모든 변수들이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임으로써, 허쉬의 주장과 맞닿아 있음을 알 수 있다. 청소년의 경우에 있어서

도 대체로 사회 유대 변인들과 비행들 사이의 상관관계의 방향은 예상한 것처럼 부(-)적 관계를 나타내었다.

<표 1> 아동의 비행 원인분석에 사용된 모든 변수들의 기술 통계분석과 상관관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 지위비행	1.000														
(2) 폭력비행	.236	1.000													
(3) 재산비행	.163	.260	1.000												
(4) 남울괴롭힘	.233	.341	.183	1.000											
(5) 사이버비행	.226	.237	.187	.275	1.000										
(6) 부모애착	-.104	-.084	-.028	-.067	-.081	1.000									
(7) 부모감독	-.078	-.079	-.051	-.066	-.083	.498	1.000								
(8) 선생애착	-.083	-.067	-.037	-.091	-.096	.285	.283	1.000							
(9) 친구애착	-.094	-.055	-.015	-.062	-.069	.275	.185	.124	1.000						
(10) 학교성적	-.126	-.093	-.025	-.082	-.071	.387	.360	.236	.299	1.000					
(11) 학생열망	-.071	-.030	-.018	-.052	-.043	.187	.156	.137	.117	.277	1.000				
(12) 과외활동	-.035	-.008	-.010	.012	.016	.117	.110	-.011	.082	.252	.139	1.000			
(13) 비행친구	.156	.239	.137	.294	.135	.006	-.015	-.053	.000	.028	-.005	.074	1.000		
(14) 성별(남자)	.122	.124	.024	.102	.109	-.144	-.170	-.212	.025	-.106	-.052	-.034	.136	1.000	
(15) 가구 소득	.001	-.002	-.012	-.002	.035	.074	.048	.030	.052	.125	.055	.109	.014	-.004	1.000
평 균	.18	.06	.02	.21	.33	22.40	13.70	8.21	8.07	30.33	3.49	4.18	2.66	-	305.64
표준편차	.446	.266	.159	.508	.710	4.384	3.834	2.692	1.835	5.150	1.549	2.311	6.139	-	235.08

하지만 이중에서 친구애착과 학생의 직업에 대한 기대변수는 모든 비행들과 정(+)적 관계를 보임으로써, 허쉬의 주장과는 다른 결과를 나타냈다. 그리고 학생의 교육열망, 과외활동 변수들은 비행의 유형에 따라 일관적이지 않은 관계를 나타냈다. 사회유대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는 모든 변수들

이 유의미한 정(+)적 관계를 나타내어(과외활동은 선생애착과 학생의 직업에 대한 기대변수와의 관계에서 유의미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경우처럼 허쉬가 주장한 대로 사회유대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가 높음을 보여주었다.

<표 2> 청소년의 비행원인분석에 사용된 모든 변수들의 기술 통계분석과 상관관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 지위비행	1.000															
(2) 폭력비행	.404	1.000														
(3) 재산비행	.352	.411	1.000													
(4) 남용괴롭힘	.232	.417	.348	1.000												
(5) 사이버비행	.168	.158	.145	.256	1.000											
(6) 부모애착	-.139	-.101	-.068	-.032	-.038	1.000										
(7) 부모감독	-.147	-.084	-.085	-.029	-.068	.569	1.000									
(8) 선생애착	-.073	-.026	-.052	-.035	-.076	.188	.164	1.000								
(9) 친구애착	.051	.029	.030	.046	.080	.199	.173	.104	1.000							
(10) 학교성적	-.210	-.085	-.077	-.011	.031	.210	.234	.087	.163	1.000						
(11) 학생기대	.012	.025	.029	.007	.020	.121	.105	.083	.103	.164	1.000					
(12) 학생열망	-.091	-.049	-.025	.011	.027	.126	.124	.034	.105	.389	.153	1.000				
(13) 과외활동	-.026	.026	-.001	.039	.041	.045	.031	.013	.053	.211	.021	.169	1.000			
(14) 비행친구	.386	.320	.267	.195	.109	-.128	-.087	-.048	.029	-.141	.022	-.047	.040	1.000		
(15) 성별(남자)	-.040	.070	-.016	.023	.108	-.117	-.160	.058	-.084	-.064	-.015	-.040	.054	.043	1.000	
(16) 가구소득	-.036	.008	.005	.026	-.006	.088	.047	-.007	.056	.194	.080	.171	.161	.003	.031	1.000
평균	.49	.09	.07	.10	.77	20.49	13.47	7.84	7.17	-41.39	3.46	3.99	3.06	3.52	-	299.83
표준편차	.831	.373	.295	.347	1.114	4.552	3.355	2.469	1.446	26.878	1.043	.811	2.374	11.278	-	182.80

<표 3>와 <표 4>는 아동과 청소년의 비행유형별 회귀분석의 결과들을 보여준다. 회귀분석의 결과를 보면, 아동의 경우 지위비행은 유대변수 중에서 친구애착($\beta = -.055$, $p = .006$)과 학교성적($\beta = -.084$, $p < .001$)이 유의미한 부(-)적 관계를 보였다. 이것은 친구애착이 강할수록, 그리고 학교성적이 좋을수록 지위비행을 적게 저지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는 허쉬의 주장의 일부를 지지하는 것이다. 하지만 다른 사회유대요소는 지위비행과

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통제변수 중에서 비행친구($\beta = .151, p < .001$)와 성별($\beta = .094, p < .001$)은 지위비행과 유의미한 정(+)적 관계를 나타냈다. 즉 비행친구가 많을수록 지위비행을 많이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고, 성별로는 남자아동이 여자아동보다 지위비행을 더 많이 저지르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청소년의 경우와는 반대인데, 상대적으로 나이가 어린 아동에서만 지위비행에서 여자가 남자보다 더 많이 지위비행을 저지르는 역전현상이 아직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 같다. 한편 청소년의 경우 지위비행은 부모애착($\beta = -.058, p = .014$), 부모감독($\beta = -.065, p = .006$)과 학교성적($\beta = -.160, p < .001$)이 유의미한 부(-)적 관계를 보였는데, 부모애착과 부모감독이 강할수록, 그리고 학교성적이 좋을수록 지위비행을 적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친구애착($\beta = .061, p = .003$)은 위의 상관관계에서도 나타났듯이 지위비행과 정(+)적 관계를 보였는데, 이것은 친구애착이 강할수록 지위비행을 더 많이 저지른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허쉬의 주장과는 상반되는 것이다. 통제변수에서는 역시 비행친구($\beta = .348, p < .001$)가 정(+)적 관계를 나타냈다. 하지만 성별에서는 아동과는 반대로 여자청소년이 남자청소년보다 지위비행을 더 많이 저지르는 것으로 드러났다($\beta = -.104, p < .001$). 이것은 1차 청소년 패널조사에서 나타난 결과와도 비슷한 분석 결과이다(민수홍, 2004; 이순래, 2004).

폭력비행에 있어서는 아동의 경우 사회유대요소 중에 관여적 요소인 학교성적만이 유의미한 부(-)적 관계를 보였고($\beta = -.072, p = .001$) 다른 나머지 사회유대요소와는 아무런 관계를 보여주지 않았다. 청소년의 경우에도 관여적 요소인 학생열망($\beta = -.046, p = .042$)만이 유의미한 부(-)적 관계를 보였다. 따라서 폭력비행은 아동과 청소년 둘 다 다른 사회유대변수들에 비해 관여적 요소와 관계가 깊은 것으로 볼 수 있겠다. 통제변수 중에서는 아동

의 경우, 계속해서 비행친구, 성별과 유의미한 정(+)적 관계를 보여 주었다. 비행친구가 많을수록($\beta=.236$, $p<.001$) 폭력비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남자아동이 폭력비행을 더 많이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077$, $p<.001$). 청소년의 경우에도 통제변수에서는 비행친구가 많을수록($\beta=.291$, $p<.001$) 폭력비행 가능성이 높고 남자청소년이 여자청소년보다 폭력비행을 더 많이 저지르는 것으로 드러났다($\beta=.055$, $p=.009$).

<표 3> 아동의 비행유형들에 대한 사회유대요소의 다중회귀분석결과

변 수	지위비행		폭력비행		재산비행		남괴롭힘		사이버비행	
	b(β)	p-value	b(β)	p-value	b(β)	p-value	b(β)	p-value	b(β)	p-value
상 수	.556	<.001	.215	<.001	.061	.007	.501	<.001	.730	<.001
부모애착	-.004 (-.037)	.107	-.002 (-.035)	.127	.000 (-.005)	.836	-.002 (-.015)	.517	-.004 (-.022)	.332
부모감독	.000 (.003)	.878	-.001 (-.011)	.613	-.002 (-.037)	.104	.000 (-.004)	.865	-.006 (-.031)	.166
선생애착	-.003 (-.020)	.335	-.001 (-.015)	.465	-.001 (-.019)	.359	-.007 (-.038)	.058	-.012 (-.046)	.025
친구애착	-.013 (-.055)	.006	-.003 (-.019)	.344	.000 (.002)	.910	-.009 (-.032)	.105	-.017 (-.045)	.027
학교성적	-.007 (-.084)	<.001	-.004 (-.072)	.001	.000 (-.010)	.673	-.006 (-.064)	.004	-.005 (-.033)	.143
학생열망	-.007 (-.024)	.218	.001 (.007)	.712	.000 (-.001)	.953	-.007 (-.021)	.283	-.005 (-.010)	.612
과외활동	-.002 (-.009)	.634	.000 (-.002)	.937	-.001 (-.016)	.431	.002 (.011)	.554	.007 (.022)	.268
비행친구	.011 (.151)	<.001	.010 (.236)	<.001	.004 (.136)	<.001	.023 (.283)	<.001	.014 (.121)	<.001
성별(남자)	(.083) (.094)	<.001	.041 (.077)	<.001	-.002 (-.005)	.803	.047 (.046)	.016	.098 (.069)	<.001
가구소득	.000 (.020)	.296	.000 (.002)	.915	.000 (-.010)	.592	.000 (.004)	.814	.000 (.040)	.037
F	17.293	<.001	23.552	<.001	6.011	<.001	29.946	<.001	11.292	<.001
Adjusted R ²	.057		.077		.018		.097		.037	

<표 4> 청소년의 비행유형들에 대한 사회유대요소의 다중회귀분석결과

변 수	지위비행		폭력비행		재산비행		남괴롭힘		사이버비행	
	b(β)	p-value	b(β)	p-value	b(β)	p-value	b(β)	p-value	b(β)	p-value
상 수	.439	.005	.070	.322	.011	.852	.075	.310	.608	.010
부모애착	-.010 (-.058)	.014	-.003 (-.039)	.119	-.001 (-.009)	.732	.000 (.006)	.817	-.006 (-.023)	.378
부모감독	-.016 (-.065)	.006	-.002 (-.019)	.458	-.005 (-.057)	.028	-.001 (-.014)	.598	-.011 (-.035)	.184
선생애착	-.002 (-.006)	.777	-.001 (-.010)	.623	-.002 (-.021)	.341	-.003 (-.023)	.293	-.036 (-.083)	<.001
친구애착	.034 (.061)	.003	.009 (.038)	.078	.005 (.025)	.261	.006 (.023)	.298	.061 (.078)	<.001
학교성적	-.005 (-.160)	<.001	.000 (-.030)	.210	.000 (-.046)	.058	.000 (.006)	.793	.001 (.031)	.211
학생기대	.026 (.033)	.094	.012 (.035)	.093	.008 (.032)	.135	.002 (.005)	.825	.029 (.028)	.207
학생열망	-.017 (-.017)	.434	-.020 (-.046)	.042	.010 (.029)	.220	-.011 (-.025)	.292	.035 (.025)	.291
과의활동	.000 (-.001)	.980	.004 (.025)	.240	.000 (-.001)	.976	.008 (.056)	.011	.014 (.030)	.174
비행친구	.027 (.348)	<.001	.010 (.291)	<.001	.006 (.235)	<.001	.006 (.191)	<.001	.012 (.114)	<.001
성별(남자)	(-.165) (-.104)	<.001	.038 (.055)	.009	-.020 (-.037)	.084	.012 (.018)	.411	.214 (.097)	<.001
가구소득	.000 (.004)	.823	.000 (.014)	.513	.000 (.014)	.505	.000 (.010)	.655	.000 (-.049)	.026
F	48.529	<.001	23.172	<.001	14.400	<.001	8.922	<.001	8.345	<.001
Adjusted R ²	.197		.103		.065		.039		.037	

재산비행에 있어서는 아동의 경우 사회유대요소 중에 단 한 개의 변수도 유의미한 관계를 보여주지 못하였다. 청소년의 경우에는 사회유대요소 중에 부모감독이 유의미한 부(-)적 관계를 보여주었고($\beta = -.057$, $p = .028$), 학교성적과도 약하나마 부(-)적 관계가 있음을 나타냈다($\beta = -.046$, $p = .058$).

통제변수 중에는 아동의 경우, 비행친구가 정(+)적 관계를 보여주었다($\beta = .136, p < .001$). 청소년의 경우에도 비행친구($\beta = .235, p < .001$)와 정(+)적 관계를 보였다.

남괴롭힘과 관련해서는 아동의 경우 사회유대요소 중에서 선생애착($\beta = -.038, p = .058$), 학교성적($\beta = -.064, p = .004$)과 부(-)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선생님과 애착이 강할수록, 그리고 학교성적이 좋은 아동일수록 남을 괴롭히는 행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청소년의 경우에는 참여(과외활동)와는 오히려 정(+)적 관계를 보여주었다($\beta = .056, p = .011$). 이는 허쉬의 주장과 상반된 결과로서, 과외활동이나 사교육활동이 많을수록 남을 괴롭히는 비행이 증가했음을 말한다. 아마도 학원 등의 과외활동공간이 남을 괴롭히는 비행을 저지르는데 있어서 그 대상과 공간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통제변수에서는 아동의 경우는 비행친구($\beta = .283, p < .001$)와 정(+)적 관계를 보였고, 남자아동이 남괴롭힘을 더 많이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046, p = .016$). 청소년의 경우에는 비행친구($\beta = .191, p < .001$)와 정(+)적 관계를 나타냈지만 아동과는 달리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사이버비행과 관련해서는 아동의 경우 사회유대요소 중에서 선생애착과 부(-)적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고($\beta = -.046, p = .025$), 친구애착과도 부(-)적 관계를 보여 주었다($\beta = -.045, p = .027$). 즉 선생님과 애착관계가 강한 아동일수록, 그리고 친구와의 애착관계가 강한 아동일수록 사이버비행을 덜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경우에 있어서는 선생애착($\beta = -.083, p < .001$)과는 부(-)적 관계를 나타냈다. 즉 선생님과 애착이 강할수록 사이버비행을 적게 저지르는 것으로 보여 진다. 하지만 친구애착($\beta = .078, p < .001$)은 아동의 경우와는 달리 정(+)적 관계를 나타냈다.

이것은 역시 허쉬의 입장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서, 친구애착이 강할수록 사이버비행을 더 많이 저지른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앞에서 지위비행의 경우와 비슷한 결과로서 청소년의 경우는 친구애착이 지위비행과 사이버비행 같은 경비행은 오히려 비행의 가담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통제변수와 관련해서는 아동의 경우, 비행친구($\beta=.121$, $p<.001$), 성별($\beta=.069$, $p<.001$), 그리고 가구소득($\beta=.040$, $p=.037$)은 정(+)적 관계를 나타냈다. 비행친구가 많은 아동이, 그리고 남자아동이 여자아동보다 사이버비행을 많이 저지르는 경향을 발견했다. 가구소득은 다른 비행과는 관계가 없었으나 사이버비행과 관련해서는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아동의 사이버비행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에게 컴퓨터를 사줄 수 있는 경제력이 있는 가구의 아동이 사이버비행의 가담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일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통제변수와 관련해서 청소년의 경우에는 아동의 경우에서처럼 비행친구($\beta=.114$, $p<.001$), 성별($\beta=.097$, $p<.001$)은 정(+)적 관계를 보였다. 그러나 아동의 경우와는 반대로 가구소득은 사이버비행과 부(-)적 관계를 나타냈다($\beta=-.049$, $p=.026$). 이것은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사이버비행 가능성이 낮아짐을 의미한다.

V. 토론 및 결론

사회유대이론의 관점에서 바라본 아동/청소년의 비행의 원인을 비교한 결과, 아동의 경우에는 사회유대요소 가운데 선생애착은 남괴롭힘, 사이버비행과 부(-)적 관계가 있고, 친구애착은 지위비행, 사이버비행과 부(-)적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학교성적이 지위비행, 폭력비행, 남괴롭

힘과 부(-)적 관계가 있음을 보여 주었다. 결국 전반적으로 사회유대요소가 아동의 비행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비행친구 변수를 통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비행을 제외한 다른 비행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비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가설(1)은 지지되어진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기대했던 것만큼 그다지 큰 설명력을 가진다고 볼 수는 없다고 여겨진다. 특히 아동의 경우, 부모와의 애착이나 감독이 청소년에 비해서 낮은 연령집단인 아동의 비행에 보다 더 중요한 요소일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비행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우리의 예상과는 사뭇 다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친구들과의 애착이 강할수록 아동의 지위비행 가담 가능성이 낮은 것은 허쉬의 주장을 지지하는 것이지만 아동들에게 있어서 친구애착이 지위비행에 주는 영향이 청소년들의 지위비행(친구애착이 강할수록 청소년의 지위비행 가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과는 다르게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아동의 지위비행은 청소년의 지위비행에 비해서 집단적 성향이 약하다고 보여 지며 따라서 나쁜 친구와의 애착이 비행에 가담하게끔 하는 경향이 낮을 것으로 생각된다.

아동의 경우는 사회유대요소 가운데 학교성적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광범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성적이 좋은 아동일수록 지위비행, 폭력비행, 그리고 남괴롭힘을 적게 저지르는 것은 허쉬의 주장대로 이들이 사회의 관습적인 활동과 관례에 대한 투자정도와 순응에의 이해관계가 높기 때문에 비행을 할 가능성이 줄어들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청소년비행과 관련해서는 학교의 관여정도를 나타내는 학교성적이 비행여부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지만 상대적으로 낮은 연령인 아동들도 학교에 대한 관여가 강할수록 비행에 참여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은

한국사회의 교육에 대한 관심과 조기교육 열풍이라는 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

청소년의 경우에는 사회유대요소 가운데 부모애착, 부모감독과 학교성적이 지위비행과 부(-)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애착이 강하고 부모감독이 잘 이루어진 청소년들은 부모의 심리적 존재에 대한 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위비행에 가담할 확률이 낮아지기 때문일 것이다. 학교성적이 높은 청소년들도 지위비행을 함으로써 학교에서의 자신의 투자분이 상실할 위험을 자행할 가능성이 낮다고 보여 진다. 부모감독은 재산비행과도 부(-)적 관계를 가지며, 선생애착도 사이버비행과 부(-)적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친구애착은 지위비행, 그리고 사이버비행과 정(+)적 관계를 나타냈는데, 이는 허쉬의 주장과 상반된 결과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친구애착이 경비행에서는 오히려 비행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이성식, 1995). 그렇지만 비행과 유의미한 부(-)적 관계를 보인 사회유대변수가 주로 부모감독, 선생애착, 관여(학교성적)이고 참여는 별로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 않은 것은(예외적으로 청소년의 경우 남을 괴롭히는 비행과 정(+)적 관계를 보임) 허쉬(1969)의 연구결과와 비슷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다.

친구애착과 지위비행 간의 분석결과를 볼 때 친구애착과 관련해서 청소년의 지위비행에서는 친구애착이 비행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보다는 비행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마도 일반친구와의 애착보다 비행친구와의 애착이 애착의 정도 면에서 강도가 높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보여 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다. 이러한 결과는 외국의 연구에서도 발견되는데 친구에 대한 애착은 친구가 관습적 규범에 동조할 때만 순응으로 이끈다는 결과가 나왔다.

즉 허쉬의 가설과는 다르게, 비행친구에 대한 애착이 강한 사람들은 비행을 저지르기 쉽다는 것이다(Conger, 1976; Elliott, Huizinga, and Suzanne, 1985; Junger-Tas, 1992; Warr, 2002). 이런 결과는 사회유대이론보다 차별접촉이론을 지지하는 입장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연구에서 측정된 지위비행이 ‘담배피우기’, ‘술마시기’, ‘무단결석’ 등과 같이 주로 청소년들 사이에서 집단적으로 이루어지는 비행이 많다고 보았을 때 비행친구와의 애착은 이러한 비행의 집단적 심리를 조장하고 서로 충동하는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높고 비행참여에 대한 압력을 행사하는 비행친구의 영향이 크게 작용하리라고 보여 진다(Zimring, 1981; Erickson and Jensen, 1977). 그러한 논리의 연장선상에서 허쉬의 친구애착은 비행친구이든 좋은 친구이든 애착만 있으면 비행의 가능성을 줄일 것이라는 주장은 이 연구에서는 지지될 수 없었다고 봐야 할 것 같다.

청소년비행에 있어서 가구소득과 사이버비행간의 관계에서는 아동과는 달리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사이버비행 가담율이 낮아지는 것은 가구소득이 높은 가구의 청소년들은 다른 여러 가지 방과 후 활동이나 취미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만큼 가정의 경제력이 뒷받침이 되어서 컴퓨터 사용시간이 그만큼 상대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과외활동과 남괴롭힘 간의 관계가 정(+)적이라는 것은 과외활동이 많은 청소년일수록 남괴롭힘 비행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인데 이것은 위의 분석결과에서 잠시 언급했듯이 아마도 학원 등의 과외활동이 남을 괴롭히는 비행을 저지르는데 있어서 학교에서 과외활동을 하는 학원 등으로까지 남을 괴롭힐 수 있는 공간의 증가와 그 대상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추론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전체적으로 볼 때 사회유대요소들이 비행친구변수를 통제한 후에도 여전히 청소년비행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계속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사회유대이론이 한국의 청소년비행을 설명하는데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가설(2)는 지지된다고 말할 수 있겠다.

한편, 이 연구에서 밝혀진 중요한 결과들 중의 하나로서 사회유대요소 가운데 부모애착, 부모감독 같은 변수는 부모자식 간의 관계가 보다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생각되는 낮은 연령집단인 아동의 비행을 더 잘 설명해 줄 것이라는 가설(3)은 지지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예상과는 다른 것으로서, 아동의 경우는 부모애착, 부모감독 변수들이 5가지 비행유형 가운데 어느 하나도 설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청소년의 경우는 부모애착이 지위비행과, 그리고 부모감독 변수가 지위비행, 재산비행과 유의미한 부(-)적 관계를 보여줌으로써 부모의 영향이 아동보다는 청소년들의 비행정도에 더 중요함을 말해주고 있다.

나아가서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경우 학생열망이 폭력비행과 부(-)적 관계, 부모감독과 학교성적이 재산비행과 부(-)적 관계를 보여줌으로써, 아동의 경우 오로지 학교성적만이 폭력비행과 부(-)적 관계를 보여준 것에 비해서는 중비행도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따라서 가설(4)는 대체로 지지된다고 할 수 있으나 가설(5)는 지지될 수 없다고 할 수 있겠다.

통제변수로 사용한 비행친구 변수는 아동과 청소년의 모든 비행에 있어서 유의미한 정(+)적 관계를 보여 주었을 뿐만 아니라 설명력도 사회유대와 관련한 다른 독립변수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변수도 지위비행(아동의 경우에는 남자가 더 많이, 청소년의 경우는 여자가 더 많이 저지름)에서 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드러났고 폭력비행, 남괴롭힘과 사

이비행에서는 남자아동이, 폭력비행과 사이버비행에서는 남자청소년이 더 많이 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은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아동과 청소년의 경우에 사이버비행과 반대의 결과를 보였는데 이는 연령이 올라갈수록 컴퓨터 이외의 다양한 취미활동이나 여가활동을 제공할 경제력이 있는 가정의 청소년이 사이버비행 가능성이 낮아지기 때문일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겠다.

결론적으로 사회유대요소와 관련한 변인들을 중심으로 아동과 청소년의 비행의 원인분석을 해 본 결과는 전체적으로 사회유대요인은 비행친구변수를 통제한 후에도 비행에 여전히 직접적인 영향력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의 아동/청소년 비행을 설명하는데 일정한 유효성은 있다고 본다. 그렇지만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에 유의미한 관계를 보여준 경우가 청소년비행 원인분석 모델에서 더 많았으므로 사회유대요소는 아동보다는 청소년의 비행을 설명하는데 좀 더 적절한 이론적 모형인 것처럼 보인다. 추가해서 위에서 잠시 언급한 것처럼 통제변수인 비행친구의 영향이 아동/청소년 비행(거의 모든 유형을 포함) 모두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차별접촉이론 등과 같은 다른 이론에 기초한 연구모형을 통해 아동/청소년 비행의 원인비교를 위한 연구 작업을 해 보는 일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 김준호 외. 1989. 청소년비행의 원인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준호. 1995. “청소년 비행집단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 6(1):131-165.
- 김준호, 김순영. 1995. 가정환경과 청소년비행.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준호, 노성호, 이성식, 곽대경, 이동원, 박철현. 2003. 청소년비행론. 청목출판사.
- 민수홍. 2004. 청소년의 자기통제력과 비행 및 피해경험. 제1회 한국청소년패널 학술대회 자료집.
- 박영신, 김이철. 2000. “부모-자녀관계 변화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초, 중, 고, 대학생의 성취동기, 생활만족도, 학업성취, 일탈행동을 중심으로,” 교육학연구 38(2): 109-146.
- 엄명용. 2001. “아동학대와 청소년 비행간의 관계: 가족 내 부모지지 및 감독의 완충효과 검증,” 한국가족복지학 8: 149-178.
- 유순화. 2003. “사회유대이론과 사회학습이론의 통합에 의한 청소년 비행 예측,” 청소년학연구 10(4): 289-315.
- 이경상, 조혜영, 박현수. 2004. 한국청소년 패널조사 II. 한국청소년개발원.
- 이성식. 1995. “청소년비행론에 있어서 허쉬의 사회통제이론에 대한 수정된 논의,” 형사정책연구 6(4): 183-204.
- 이순래. 2004. 여자청소년의 비행원인에 관한 연구. 제1회 한국청소년패널 학술대회 자료집.
- 이은혜, 김정윤, 오원정. 2001. “아동의 또래지위 및 친구관계와 학교적응의 관계,” 아동학회지 22(1): 1-18.
- 정익중, Hawkins, J. D. 2002. “빈곤 아동과 비빈곤 아동의 비행 발달궤적

- 변화의 예측요인,” 사회복지연구 20: 173-199.
- 최선희, 김희수. 2006. “아동의 비행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적 요인들의 다차원적 상호작용,” 한국아동복지학 21: 233-258.
- 한미현, 유안진. 1996. “아동의 스트레스 및 사회적 지지 지각의 행동문제,” 아동학회지 17(1): 173-188.
- Adler, F., Mueller, G., & Laufer, W. 2001. *Criminology*(4th ed.). Boston: McGraw Hill.
- Agnew, R. 1985. Social control theory and delinquency: A longitudinal test. *Criminology*, 23, 47-61.
- Akers, R. L. 1973. *Deviant behavior: A social learning approach*. Belmont, CA: Wadsworth.
- Baber, B. K. 1996.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Revisiting a neglected construct. *Child Development*, 67, 3296-3319.
- Burgess, R. L. & Akers, R. L. 1966. A differential association reinforcement theory of criminal behavior. *Social Problems*, 14, 128-147.
- Caulfield, S. L. 1988. *An extension and refinement of Hirschi's social control theory: Analyzing interactions among the elements of the social bond*.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Albany.
- Conger, R. 1976. Social control and social learning models of delinquency: A synthesis. *Criminology*, 14, 17-40.
- Cummings, E. M., Davies, P. T., & Campbell, S. B. 2000.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and family process*.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Egeland, B., Carlson, E., & Sroufe, L. A. 1993. Resilience as process.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5, 517-528.
- Elliott, D. S., Huizinga, D., & Ageton, S. 1985. *Explaining delinquency and drug use*. Beverly Hills: Sage.
- Erickson, M. L. & Jensen, G. F. 1977. Delinquency is still group behavior: Toward revitalizing the group premise in the sociology of deviance. *The Journal of Criminal Law and Criminology*, 68, 262-273.
- Gibbs, J. 1977. Social control, deterrence, and perspectives on social order. *Social Forces*, 56, 408-423.
- Glaser, D. 1956. Criminal theories and behavioral image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61, 433-444.
- Glueck, S. & Glueck, E. 1959. *Predicting delinquency and crime*.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Hill, K. G., Howell, J. C., Hawkins, D., & Pearson, S. R. 1999. Childhood risk factors for adolescent gang membership: Results from the Seattle social development Project.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36, 300-322.
- Hindelang, M. 1973. Cause of delinquency: A partial replication and extension. *Social Problems*, 20, 471-487.
- Hirschi, T. 1969. *Cause of delinquenc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Junger-Tas, J. 1992. An empirical test of social control theory. *Journal of Quantitative Criminology*, 8, 9-28.

- Krohn, M. D. & Massey, J. L. 1980. Social control and delinquent behavior: An examination of the elements of social bond. *Sociological Quarterly*, 21, 529-543.
- Loeber, R. & Stouthamer-Loeber M. 1986. Family factors as correlates and predictors of juvenile conduct problems and delinquency. In M. Tonry & N. Morris (Eds.), *Crime and justice*, Vol. 7 (pp. 29-149). Chicago, I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McCord, W. & McCord J. 1959. *Origins of crime: A new evaluation of the Cambridge Sommerville Youth Study*. New York: Colombia University.
- Musick, D. 1995. *An introduction to the sociology of juvenile delinquency*. Albany, New York: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 Pettit, G. S. & Bates, J. E. 1989. Family interaction patterns and children's behavior problems from infancy to 4 years. *Developmental Psychology*, 25, 413-420.
- Rankin, J. H. & Well, L. E. 1990. The effect of parental attachments and direct controls on delinquency.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20, 140-165.
- _____, 1994. Social control, broken homes and delinquency, In G. Barak(Ed.), *Variety of criminology: Readings from a dynamic discipline*. Westport, Conn: Praeger.
- Ross, E. A. 1901. *Social control*. New York: Macmillan.
- Rutter, M. & Giller, H. 1984. *Juvenile delinquency: Trends and*

- perspectives*. New York: Guilford Press.
- Simth, C. A. & Krohn, M. D. 1994. Delinquency and family life among male adolescents: The role of ethnicity.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4, 69-93.
- Stern, S. B. & Smith, C. A. 1995. Family processes and delinquency in an ecological context. *Social Service Review*, 69, 703-731.
- Sutherland E. H. 1939. *Principles of criminology*(3rd ed.). Philadelphia: Lippincott.
- Thornberry, T. P. 1987. Toward an interaction theory of delinquency. *Criminology*, 25, 863-891.
- Warr, M. 2002. *Companions in crime: The social aspects of criminal conduc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Whitehead, J. T. & Lab, S. P. 1990. *Juvenile justice: An introduction*. Cincinnati, OH: Anderson Publishing.
- Wiatrowski, M. D., Griswold, D. B., & Roberts, M. K. 1981. Social control theory and delinquency.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6, 525-541.
- Zimring, F. E. 1981. Kids, groups and crime: Some implications of well-known secret. *The Journal of Criminal Law and Criminology*, 72, 867-885.

The Different Causalities under Different age Groups in Juvenile Delinquency: Focusing on Hirschi's Social Bonding Theory

Kim, Sang-Weon*

This study examines the different causality under different age groups in juvenile delinquency. In this study, the relationships between variables related to social control and juvenile delinquency are tested through the perspective of social control theories, specially, Hirschi's social bonding theory. Social control theory focuses upon techniques and strategies that regulate human behavior and lead to conformity, or obedience to society's rules. The more involved and committed a person is to conventional activities and values and the greater the attachment to parents, loved ones, and peer groups, the less likely that person is to commit crime and delinquency. Hirschi's social bonding theory has represented this perspective. Hirschi pointed out four social bonds that promote social conformity: attachment, commitment, involvement, and beliefs. He claimed, the stronger these social bonds, the less likelihood of delinquency. This study intends to test this theory by comparing with models estimated from two different age groups by using Korean Youth Panel Survey(KYPS) data

*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Police Science, Dong-Eui University, Ph.D. in Sociology

from 2,844 elementary school students and 3,209 middle school students. Results show different findings between two different age groups. Overall, the association between social bonds and delinquency is found from both age groups of adolescence. However, there is no support for the hypothesis that parents have more influence on elementary school students' delinquent behavior than middle school students' delinquent behavior.

주제어 : 아동/청소년 비행, 사회통제, 사회유대

Keywords : juvenile delinquency, social control, social bonding